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진 근로자의 사업장 건강증진센터 참여도

(Are employees who are at risk for cardiovascular disease
joining worksite fitness centers?)

저자 : Heaney CA and English P

출처 : JOEM 1995;37(6):718-724

미국에서는 많은 사업장이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사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직업병 및 성인병 발생을 줄임으로써 의료비용 및 질병발생으로 인한 보상비용의 감소를 꾀하고 있다. 사업장 건강증진센터가 질병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여 비용-효과의 목표를 달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각종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진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진 근로자의 사업장 건강증진센터 참여도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한 대형보험회사에 새로 입사한 29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 연령, 인종, 교육정도, 결혼상태, 급여정도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심박동수의 회복(recovery heart rate), 혈압, 과체중률(percentage overweight), 활동수준, 흡연 등을 오리엔테이션 기간동안 조사한 후 1년동안 신입사원들이 사업장 건강증진센터에 참여하는가를 조사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 근로자들은 전반적으로 심혈관질

환의 위험요인을 비교적 적게 가지고 있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20% 이상 과체중률을 가진 사람과 (남성 40%, 여성 31%) 수축기 혈압이 높은 사람의 빈도가(남성 13%, 여성 3%)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신입사원의 19%가 첫 1년동안 사업장 건강증진센터에 가입하였는데 그중 72%는 첫 3개월 이내에 가입하였다. 여러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사업장 건강증진센터에 가입할 비차비를 보정없이 구한 결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비차비는 2.04($p < .05$), 대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비차비는 2.29($p < .01$)이었다. 고임금 근로자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비차비는 7.08로 통계학적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1$) 이것은 특정직업과 연관된 특성, 예를들면 직업의 자율성과 시간조절의 자율성 등이 근로자의 사업장 건강증진센터 가입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 결혼상태, 인종 등에 의한 가입유무에 대한 비차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사업장 건강증진센터에 가입할 비차비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사업장 건강증진센터 가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성을 구분하여 위험인자와 가입결정과의 비차비를 구하였을때 남성과 여성에서 이완기 혈압, 활동수준, 과체중률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완기 혈압이 높고(비차비 1.97) 활동정도가 낮은 집단(비차비 2.43)이 여성에서는 사업장 건강증진센터에 더 많이 가입하였으나 남성에서는 이완기혈압이 높은 집단(비차비 0.19)이 더 적게 가입하였고 활동정도(비차비 0.89)는 가입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장 건강증진센터에 가입하지만 남성은 현재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Spillman의 연구내용과 부합한다. 그러나 과체중률의 경우는 남성에서는 20% 이상

과체중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이 가입하였으나(비차비 1.46) 여성에서는 오히려 가입이 더 적었다(비차비 0.21). 이것은 여성은 body image와 체중에 대하여 민감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상에서 남녀의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사업장 건강증진센터 가입결정에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 건강증진센터에 가입하는데 있어서의 동기 및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연구는 위험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사업장 건강증진센터 가입을 증가시켜 사업장 건강증진센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선별검사와 생물학적 감시

저자 : Murthy LI et al.

출처 : JOEM 1995:37(2):170-184

산업의학 서비스에서는 과거 20년동안 선별검사(medical screening)와 생물학적 감시(biologic monitoring)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NIOSH에서 행한 전국적인 조사에서 1972년에서 1974년 사이에 공장 밖에서 치료받은 근로자의 수가 19.6%였는데 반해서 1981년에서 1983년 사이에는 57.8%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공장내에서 치료받은 근로자의 수는 일정하였다. 최근 1990-

1991년의 조사후에 OSHA에서는 미국 공장 가운데 6.3%가 의학적 감시(medical surveillance)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에서도 산업의학 전공의과정에 대한 학문적 흥미는 증가하고 있지만 1992년 현재 산업의학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는 150명에 불과하였다. 이 두가지 수치를 보면 산업의학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그 의사들이 산업의학 수련을 받았건 받